

창간특집 | 생활속에 피어나라 연꽃처럼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웃은 나... 몸 나누고 마음바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보살의 길이다. 불교의 생활화를 이끌어갈 본지는 창간기념으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우리시대의 보살들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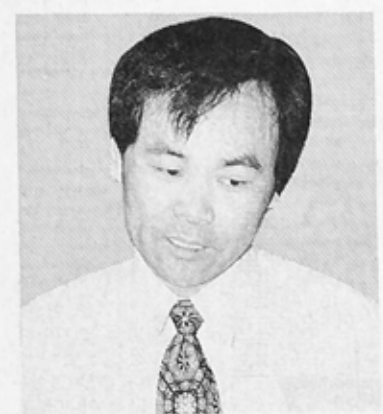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불가침구학회' 사무실은 늘 아픈 사람들로 가득하다. 앞드려 혹은 누워서 침을 맞고있는 사람들 틈새로 이 학회 대표 이흥재가사는 직접 침을 놓기도 하고, 증세를 묻고, 질문에 대답하고, 통통이 사무실 일을 보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10년째 매일 1백여 가까운 환자를 무료로 시술해오고 있는 이흥재가사를 주위에서는 '약왕보살'이라 부른다.

점심 굶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자비의 집' (상계동, 미아6동 소재)에서 장지원경 보살(46)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물이다. 매일 아침 8시 신림동 집에서부터 자비의 집에 도착하면 노인들을 위한 급식준비에 들어간다. 시장을 보고, 밥과 국, 반찬을 만들고 김치도 담는다. 자원봉사자들과 급식체크를 마치고 난 오후에는 노인들에게 수지침도 놓아주고 발뽀도 해준다. 혼자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소년가장 등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새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지만 재단을 만들어 불교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대안이 보람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행원문화상이 역경사업의 대명사가 되었으면 하는

수유리 누나. 1백여명이 넘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수유리 누나 채수선씨. 재씨는 물질적으로는 늘 부족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도 부러지 않는 부자다. 지난 6년여 동안 재씨의 동생들이 보여준 '인간승리'의 절절한 모습들이 그녀를 언제나 부자로 살 수 있게 한다. 재씨는 수유리 좁은 자신의 집 전체를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재활교육 현장으로 만들어 낸 소문난 여장이다. 마루며 방마다 나무조각 형질 색지 점토들로 어수선한 재씨의 집. 할 한마디 한마디 이어

경찰계의 아이디어맨. 경기도경 보안과장 이동섭총경은 경찰생활 34년동안 서른여가지가 넘는 재도를 제안해 치안업무의 원활함과 범죄예방에 공헌을 세운 폭보적 존재다. 이즈음 경찰사에서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항쟁' 재도를 비롯하여 '창변경찰' '이웃사랑 웃은 행' '팔박스' '이웃사랑 먼저인사하기' '3천보걸기 운동' 등 곳곳에서 진행되고있는 지역공동체적인 운동이 그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과정의 지역공동체운동은 어려서부터 몸매인 불교적생활의 표현이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란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하나이고 또한 함께 부처가 되어야 하는 '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과정의 아이디어는 모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한다. 덕망있는 노인을 향장으로 추대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풍기문란등의 미미한 범



이흥재 거사 (불가침구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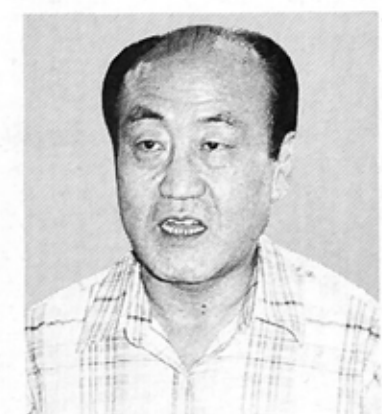
장지원경 보살 (자비의 집 자원봉사자)



주영운 거사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채수선 보살 (재활의 집 운영)



이동섭 총경 (경기도경 보안과장)

무료침술 10년 "약왕보살"

오전 8시부터 환자가 몰려들면 환자를 돌보느라 점심은 오후3시 이후에나 먹기 일쑤지만 이거사는 부듯한 기쁨으로 고갈됨을 잊는다. 이러한 이흥재 거사와 그 제자들의 정성어린 침술 덕분에 큰 병원을 전전하며 병을 고치지 못해 애태우던 환자가 며칠만에 말끔히 낫거나 반신불수로 거동할 못하던 노인이 걸어나가는 등 기적같은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흥재가사는 또한 지난해 3월부터 '나를 태워 빛이 되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조직, 인도교아를 위한 구제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에겐 많다고 할수 없는 1만명이 인도교아 1명을 한달동안 먹고 입고 공부까지 시킬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인도명상봉사단체 '아나다마가'와 인연 맺어 인도에 가 구제사업을 펼치고 아나다마가내에 있는 2년제 의과대에 침술학과도 설치했다. 매년 두번씩 의과생들에게 침술강의를 하고 무료 침술도 실시할 예정이다. 변변한 병원하나 제대로 없는 인도에 가서 무료치료도 하고 침술을 가르쳐 인도 곳곳에 침술을 퍼뜨리는 이흥재가사, 아나다마가의 봉사요원이 전세계에 퍼져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침술을 통한 요익증생의 서원은 한국에서 인도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갈듯 보인다. (이영숙 기자)

신장기증·노인공경 앞장

영세한 가정을 수시로 찾아 도시락을 싸준다거나 빨래, 청소를 해주는 일도 그의 몫이다. 의류나 생활잡화, 가구 등을 모아 필요한 집에 나눠주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이, 마음 수발을 드느라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게 빨리 가버린다. 장보살은 원래 봉사심을 타고났는지 갖 시집와서도 동네 노인들의 수발을 든 다거나 모시고 놀러가는 일을 끝낼 했고, 절에 가서도 손길이 필요한 곳 없나 늘 일을 찾아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장지원경보살은 지난 연말 교계연론의 집중스포 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의 신장 하나를 만성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임태암씨에게 기증한 일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얼마전 불자발전회 석광형씨가 장기를 7사람에게 기증해 크게 화제가 되고부터 장지원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회의 인식이 깨어 있지 못하고, 더구나 불교계에서는 장기기증에 있어서 스님약속과 동량할지 꺼려하는 차에 장보살은 93년 5월 대인회 장기기증 본부에 자신의 각막과 생전신 신장을 기증했고 교계최초로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는 뇌사시 장기기증과 사신까지 동량 기증했다. 한혈에도 인색한 불교계에서 이러한 기증속도 놀라운데 그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지금도 가끔 신장기증한 임태 암씨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고 한다. 장기기증이 '불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장지원경보살은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밝히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 아름다운 부처님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표 보인다. (숙)

역경·학술지원에 사재 털어

바람입니다."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자비정신의 실천'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온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주영운 거사(71, 아산대미론 대표이사). 사업관계로 일본을 여행하던 중 호텔방마다 일어와 영어 경전이 놓여진 것을 보고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읽고 잘 쓰여진 경전을 어디가서든 볼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했던 것이 씨앗이 되어 행원문화재단 설립으로 싹을 틔운 것이다. 주영운 거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위로 형이 있었으나 일찍이 세상을 떠나 손을 잊지 못하게 되자 아버님이 부처님께 특명을 서원하며 백일기도를 올렸다. 지극한 정성에 51세가 되어서야 막내인 주 거사를 얻은 것이다. 부처님과의 특별한 인연 탓이었을까. 20여년전 구인한 용인의 서정능원을 바탕으로 사업은 순탄하게 번창했고, 지난 90년에는 아산대미론주식의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부처님에 대한 보답과 그동안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를 생각하며 회향을 서원했다. 마침 중앙승가대 교수인 보광스님을 만나 상의하고, 이왕 회향할 바에는 불교발전을 위해 역경사업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문화재단을 구제화시키기로 했다. 지난 91년 10월 행원문화재단을 설립, 올해까지 3억5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세차례에 걸쳐 모두 6천5백만원의 장학금과 교수연구비 역경사업비를 40명의 개인과 불전지역연구원 등 9개 단체에 지원했다. "재산이 많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으면 되돌려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며 삶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정성운 기자)

뇌성장애인 기술교육 헌신

나가가 눈물겹도록 힘들고, 팔 다리가 뒤뚱뒤뚱 보기에 안타깝기만한 뇌성마비 장애인들 30여명이 20여명의 재치집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게 된다.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보다는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절절한 신념 하나로 모든 희망을 걸고 작업이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씨의 가슴은 언제나 새로운 각오로 차오른다. '야 입마, 조각칼 잡은 지 몇 분 지났고 벌써 삼중이야. 너 우리 집이 힘 줄 때 뭐라고 했어. 조각칼로 나무 다듬는 기술자 된다는 게 장난인 줄 아니? 빨리 알아서 일 해!' 더러 요령을 부리고 삼중을 느끼는 동생들에게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내리는 재씨.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서 자신의 사는 가치를 배우고 인간의 참맛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친구동생이 뇌성마비였는데 세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어요. 결국 재가 말을 인연이다 싶어 시작했어. 그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 이상의 큰 약은 없었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오늘까지 1백여명의 동생들이 늘어난 겁니다. 꼭 6년이 됐군요." 요즘 재씨의 집에서는 서른 명 정도의 동생들이 아침에 나와 저녁 때까지 전각 미싱 도자기 컴퓨터 등 자신의 일을 배우는 일에 더 분주하다. 연말에 작품전을 가질 계획 때문이다. 남의 집 쓰레기통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뒤져내고, 나무통들을 구하려 전국을 떠도는 채수선씨. 재씨는 올 연말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우리는 해냈다'는 동생들의 환호성을 들려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인다. (임연태 기자)

샘솟는 불심 30가지 일 펼쳐

최는 현장에서 파죽하듯 흔쾌히 웃었다. 범어리 나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112신고보다는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팔박스를 설치했다. 긴박한 상황에 스위치만 누르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입지 않는 헌옷을 모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웃음원은 이제 지역마다 봉사단체가 이어받아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총경이라면 눈은 계급이다. 어쩌면 일반인과 접촉하기에는 격리가 있을 자리에서 이과장은 끝론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해 왔다. 대만을 상대하는 경찰서의 서장으로 근무할때면 선봉장이 되어 출근수발을 보았다. 내근으로 업무가 바빠지는 각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공동체적의식을 전파했다. 이제는 틀림이 쓴 원고가 백으로도 출간되어 경찰은 물론 일반인의 동향이 높고 있다. 이과장은 그림에도 남다른 특기를 갖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그는 3년전 개인전을 개최해 수익금으로 장학회를 설치했다. 금년 말에도 장학사업을 위해 개인전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그린 그림이 30여점, 앞으로 20여점을 더 추가하여 소품전을 열 예정이다. 총경회를 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이동섭총경. 그의 그림은 언제나 부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담겨져 있는듯 하다. (이준열 기자)

대한불교진흥원이 불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불서 결정판! (Image of Buddhist books and a large stone tablet with inscriptions)